

보도 일시	2022.3.10.(목) 조간 2022. 3. 9.(수) 11:00	배포 일시	2022. 3. 8.(화) 16:00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책임자	과 장 고송주 (044-200-5630)
		담당자	서기관 오성현 (044-200-5637)

친환경과 미래가치 창출로 내수면 어업의 재도약 꿈꾼다 - 제5차 내수면 어업 진흥기본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6년까지 앞으로 5년 간의 내수면 어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제5차 내수면 어업 진흥 기본계획(2022년~2026년)’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수면 어업은 뱀장어, 미꾸라지, 메기, 재첩, 다슬기 등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별미 등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내수면 어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주요 하천과 호수 등은 국민들의 쉼터로 무궁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①내수면 양식산업 활성화, ②어로어업 체질개선, ③수산물 소비 확산, ④내수면어업 고부가가치화 등 4대 전략, 12개 중점 추진과제로 ‘제5차 내수면 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2026년까지 내수면어업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42,000톤으로, 생산금액을 6,000억 원으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 (생산량 / 생산금액) ('20) 34천 톤 / 4,441억 원 → ('23) 38 / 5,000 → ('26) 42 / 6,000

우선, 내수면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여 내수면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양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수온, 수질, 사료 등 양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여 양식장에 자동으로 최적의 생육조건을 제공하는 시스템인 데이터 기반 양식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또한, 대규모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도 동시에 추진한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불법어업 근절 등을 통해 내수면 어로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인공산란장, 토속어종 방류사업 등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 조사를 강화하고, 방조제를 비롯한 인공구조물로 단절된 국내 주요 하천에 어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내수면 수생태계를 회복시킨다. 아울러, 정부 중심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체계를 민·관 공조체제로 전환해 불법어업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한다.

온라인 직거래, 로컬푸드 및 대형 소비처 입점 등 유통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 내수면 수산물 소비를 확산시킨다. 내수면 수산물을 원재료로 한 가정간편식, 밀키트 등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내수면 수산물 가공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산식품 가공 인프라를 조성하여 가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맞춤형 가공식품 개발 역량도 강화한다. 또한, 내수면 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내수면 양식장, 저수지, 인공산란장 등 내수면 생산지와 유통·가공시설, 그리고 지역별 관광상품을 연계해 내수면 어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수계별 관광테마, 대표 품종 생태체험관 등 내수면 어업에 특화된 융·복합형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제5차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토대로 내수면 어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참고 1

제5차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22~'26) 요약

1 배경

○ 「내수면어업법」 제5조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 수립 필요

* (검토대상) ①내수면 진흥 정책 기본방향, ②수산자원 조성·보호, ③생산성 향상, ④유어기반(遊漁基盤) 조성, ⑤수산물 이용·가공 기술개발 및 보급 등

** 전문기관 실태조사와 지자체 및 어업인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행력이 높은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제시

2 주요 추진방향

비전	“내수면어업의 친환경 조성과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재도약”	
목표	· 2026년까지 내수면 수산물 생산량 42,000톤, 생산액 6,000억 원 달성 * 생산량/생산금액: ('20) 34천 톤 / 4,441억 원 → ('23) 38 / 5,000 →('26) 42 / 6,000	
4대전략 및 중점과제 (12개)	① 내수면 양식산업 활성화	① 안정적 양식생산 기반 마련 ②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③ 미래지향적 양식 기술 개발
	② 어로어업 체질개선	① 내수면 수생태계 자원 복원 및 관리 ② 어도 유지·관리 체계 실효성 확보 ③ 어로어업 생산체계 개선
	③ 수산물 소비확산	① 가공역량 강화 및 접근성 확대 ② 데이터기반 수급 안정화 여건 마련 ③ 내수면 수산물 유통인프라 혁신
	④ 내수면어업 고부가가치화	① 내수면어업 6차 산업화 실현 ②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③ 내수면어업 인력양성 및 맞춤형 교육개발

① 내수면 양식산업 활성화

↳ 양식수산물 생산량 : ('20) 25,709톤 → ('23) 30,000 → ('26) 33,000 → ('31) 35,000

- 데이터 기반 양식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양식시설 현대화·규모화를 위한 사업지원 확대를 통해 양식 생산성 향상
 - 양식과정의 수온, 수질, 사료, 질병 등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최적 양성조건 규명 및 원격 모니터링·자동제어시스템 개발·보급
 - * 국립수산물연구원 연구개발 시범사업(뱀장어, 무지개송어, 향어, 메기, 미꾸라지)
 - ** '23년까지 스마트양식장 2개소 조성(충북 괴산, 전남 화순) → '26년까지 4개소 확대
- 양식수산물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내수면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우려 불식
 - 의약품 데이터를 확보하고 사용량을 관리하기 위한 의약품 전자처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항목 확대('22~)
 - * (現) 90개(항생제, 금지물질, 중금속, 패류독소 등) → (改) 수산동물의약품 11개 추가
- 내수면 어가인구 감소·고령화에 대응하여 노동 집약적 양식 산업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양식으로 전환
 - 내수면 스마트 순환여과양식시스템(RAS) 산업화 모델 개발* 및 재래식 양식어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스마트 양식 기자재** 개발
 - * (1단계) 기반연구, 고도화('22~'24) → (2단계) 내수면 RAS 모델 실용화('25~)
 - ** 회전수 자동조절 스마트 수차, 사료 자동공급장치 개발

② 어로어업 체질개선

↳ 내수면 어로 생산량 : ('20) 8,226톤 → ('23) 8,600 → ('26) 9,000 → ('31) 10,000

- 수계중심 서식환경, 수산자원 등에 대한 정기적 조사를 실시하여 자원조성 사업(인공산란장, 토속어종 방류) 효과성 제고
 - 수계별 시기, 지점, 방법 등에 관한 표준화된 조사 매뉴얼을 개발 (~'24)하고 전국단위 조사를 실시('25~'26)하여 정책 기초자료 확보

- 방조제 등 인공구조물로 단절된 국내 주요 강, 하천에 어도를 설치·개보수하여 종적 연속성 확보 및 내수면 수생태계 회복
 - 국가관리 방조제(40개)를 대상으로 뱀장어 전용어도를 설치*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도 대상 개보수** 확대
 - * 뱀장어 전용어도(누적): ('21) 3개소 → ('23) 5개소 → ('26) 11개소 → ('31) 21개
 - ** 어도개보수(누적): ('21) 176개소 → ('23) 250개소 → ('26) 450개소 → ('31) 950개
- 불법어업 민·관 협력 단속체계 구축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효성 향상
 - 어업관리단·지자체·어로어업인단체 등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 및 생태계 보호

③ 내수면 수산물 소비확산

↳ 수산물 HMR 제품 비율 : ('20) 7.1% → ('23) 10.5 → ('26) 15.6 → ('31) 20.0

- 공유기반 스마트 가공시설을 구축하고,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간편식 밀키트, HMR 제품 등 가공식품 개발 역량 강화
 -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수산식품 가공인프라*를 조성하여 가공비용 절감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가공식품 개발 역량 강화
 - * 기존 수산식품 가공인프라 대상 역량강화 또는 신규 지원센터 구축 검토
- 내수면 수산물 수급 상황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내수면 수산물 공급과잉 방지 및 가격안정 유도
 - '내수면 수산물 수급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연2회)하고, 품종별 수급 위기 단계 구분 및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개발·협업체계 구축
 - * 정부, 생산자, 소비·유통, 학계 등 수급관리 위원회 구성
- 수산물 이력관리 강화로 상품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소비문화 확산 유도
 - 내수면 수산물 이력등록 제품 대상 one-stop지원*으로 어업인 수산물 이력제 참여 확대 도모(현행: 뱀장어, 메기, 우렁이 등록)
 - * 이력표시비용 지원 → 대형 온라인 판매처 입점 지원 → 마케팅·홍보 컨설팅 지원

4 내수면어업 고부가가치화

↳ 어업기반 기타소득 : ('20) 1,488만원 → ('23) 1,750 → ('26) 1,870 → ('31) 2,000

○ 유희저수지, 인공산란장, 유통시설 등의 개별 지원 사업을 생산·유통·가공·관광 등 통합형 융·복합 6차 산업화로 전환하여 시너지 창출

- 수계별 관광테마, 대표 품종 생태체험관, SOC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 내수면 특화 융·복합형 지역개발 사업 확대 추진

* 사업 확대 : ('20~'23) 6개소, 350억원 → ('24~'27) 10개소, 500억원

○ 정책·연구 부문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책 연계성 강화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추진

- 다부처(환경부, 농식품부) 및 우리부-지자체 연구기관 연계 정책·연구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책 연계성 강화 및 정보공유의 장 마련

* 우리부(국립수산과학원)-지자체(내수면연구소) 협력 연구협의체 운영(연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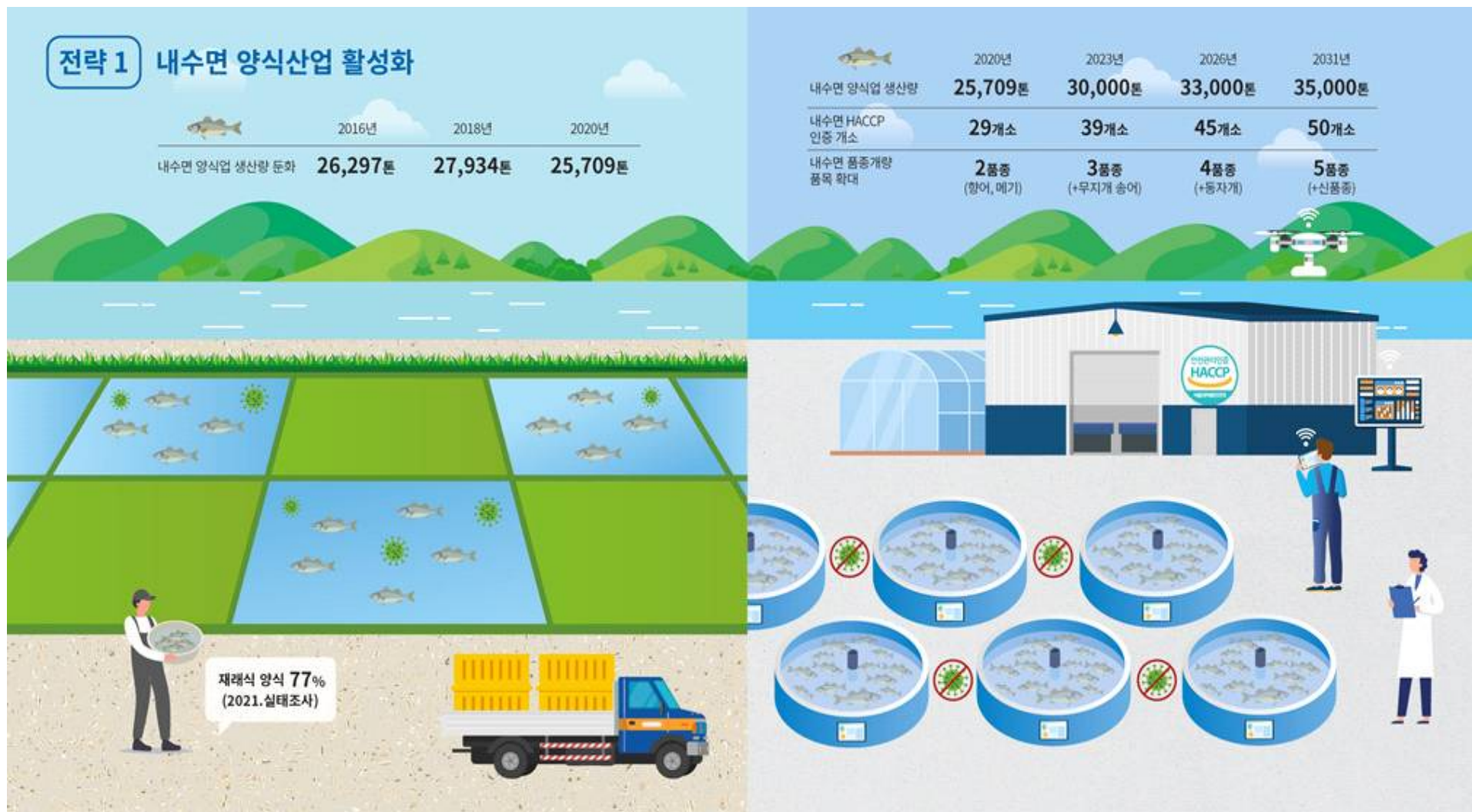
○ 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을 통한 내수면 양식품종별 맞춤형 교육 교재 개발, 수요자 중심의 교육 내실화 및 체계화

- 민간협회 등과 협력형 교육 네트워크 구축,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채널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체류형 현장 실습교육* 강화

* 내수면 귀어학교(충북 충주) 설립('~23)으로 양식 전(全) 주기 실습 교육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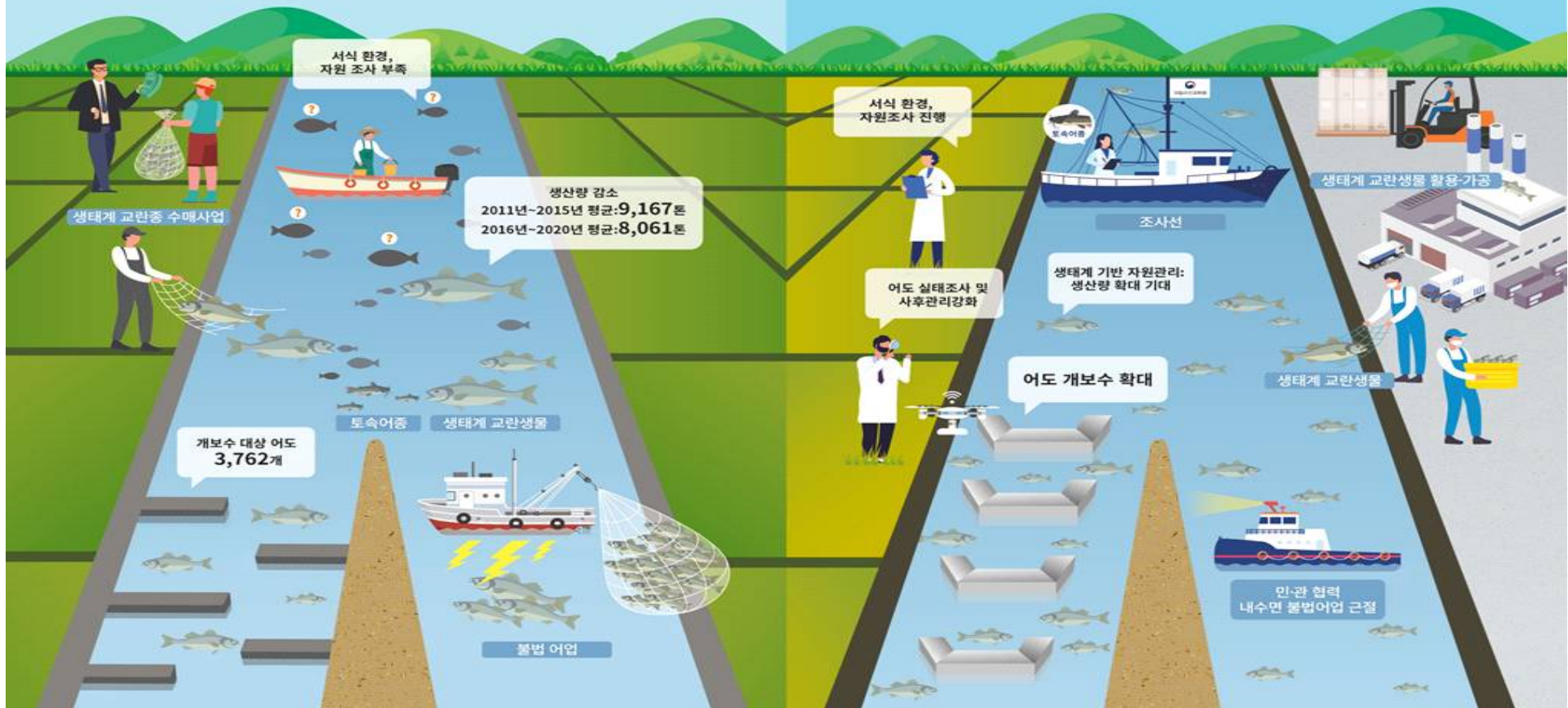
참고 2

제5차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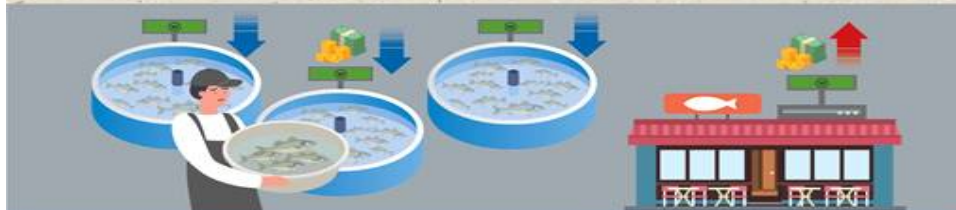


전략 2 어로어업 체질개선

	2020년	2023년	2026년	2031년
내수면 어로어업 생산량	8,226톤	8,600톤	9,000톤	10,000톤
어도개보수 사업	150개소	250개소	450개소	950개소
불법어업 적발건수	452건	340건	240건	100건



전략 3 내수면 수산물 소비 확산



	2020년	2023년	2026년	2031년
내수면 수산물 HMR 제품 비율	7.1%	10.5%	15.6%	20.0%
5대 품종의 평균 가격전폭 ※뱀장어, 메기, 송어, 황우렁이, 붕어	126.7	118.0	110.0	95.0
내수면 수산물 산지가격	13,086원	13,800원	14,500원	16,000원

대형마트 등 판로 확보



전략 4 내수면 어업 고부가가치화

	2020년	2023년	2026년	2031년
어업기반 기대소득	1,488만원	1,750만원	1,870만원	2,000만원
국·도립 연구기관 간 연구 협력 증대화	1회	2회	2회	2회
인력육성교육	597명	650명	710명	773명

